

🚫 취재 협조 문

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, 공소시효 만료 50일 전!

국민고발인 1천명,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·고발 기자회견

-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: 2022.2.7.(월) 오전 11시 /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 -

수신	각 언론사 담당 부서
발신	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·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
배포일시	2022.2.4.(금) 14:00
주최	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·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
문의	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홍보위원 김디모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(02-522-7283)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이숙건(

1.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·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(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)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와 함께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, 국민고발인 1천명 연명을 받은 고소·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【국민고발인 1천명,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·고발 기자회견】

* 일시 및 장소 : 2022.2.7.(월) 오전 11시 /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

2. 3월 31일은 ‘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5년’ 이 되는 날입니다.
그러나 검찰은 지난 5년 동안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의 책임자들을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.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50일 후 만료되어 침몰의 책임자들에게 영원히 면죄부를 주게 되는 상황입니다.
3. 이에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·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(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)는 기자회견 후 검찰에 고소·고발장을 제출하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의 책임자 처벌과 참사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.
4.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.

※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박안전법 위반 공판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, 침몰 이전부터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을 묻는 재판입니다.

【참고】 선박안전법 위반 관련 대법원 사건번호 및 피고인

- (1) 대법원 2021도7251 / 김완중 등 7인 (폴라리스슈핑 대표 및 임직원)
- (2) 대법원 2021도15587 / 문경빈 (한국선급 검사원)